

미셀린 스타 셰프 조엘 로부송(Joël Robuchon), 블랑팡 뉴욕 부티크 오픈에 참석하다

블랑팡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셰프이자 블랑팡의 친구이기도 한 조엘 로부송과 함께 피프스 애비뉴 697에 자리한 뉴욕 부티크의 공식 오픈을 축하했다. 블랑팡의 부대표이자 마케팅 대표인 알랭 델라무라즈(Alain Delamuraz)가 직접 특별한 부티크 투어를 이끌었다.

오랜 세월 함께 우정을 쌓아온 블랑팡과 높은 명성의 프랑스 셰프 모두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다. 블랑팡이 새로운 뉴욕 부티크를 오픈한 것과 함께 31 개의 미셀린 스타를 획득한 셰프 조엘 로부송이 그 근처에 자신의 "라틀리에 조엘 로부송(L'Atelier Joël Robuchon)" 레스토랑을 오픈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 아시아, 북미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레스토랑 리스트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다. 그는 새롭게 재해석한 디자인을 반영한, 두 층으로 이뤄진 375m²(4,036 ft²) 규모의 새로운 블랑팡 부티크를 방문하며 두 개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했다

오픈 이벤트에 참석한 기자들과 블랑팡의 친구들은 알랭 델라무라즈가 직접 선사한 프라이빗 투어를 즐겼고, 매장을 둘러보며 블랑팡 월드를 경험했다. 이후 알랭 델라무라즈와 위대한 셰프와의 열정적인 대화가 뒤따랐다. 그들은 품질과 탁월함을 위한 향한 열정, 전문성, 정확성, 섬세한 장인정신 등 자신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알랭 델라무라즈는 공통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혁신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엘 로부송의 테크닉이나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더욱 발전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셀린 스타 셰프 조엘 로부송은 피프티 패덤즈, 르 브라쉬스, 빌레레 컬렉션의 시계들을 둘러보며 자신 역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블랑팡 매뉴팩처를 방문해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작업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예술 작품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직접 목격했고, 셰프와 워치메이커 모두 뭔가를 창조해낼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엘 로부송은 부티크 오픈 행사에서 블랑팡 부티크 벽시계를 선물 받기도 했다. 그는 "요리에 있어 시간은 필수 재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레드주 매뉴팩처 블랑팡과의 깊은 인연"에 대한 상징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레스토랑에 그 시계를 자랑스럽게 걸어두었다.

오토 퀴진(haute cuisine)이 지금처럼 사랑받기 훨씬 전부터 메종 블랑팡은 30년 이상 요리 부문의 위대한 거장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다. 조엘 로부송과의 인연은 그가 프레디 지라데(Frédy Girardet), 폴 보퀴즈(Paul Bocuse)와 함께 골트 & 밀라우(Gault&Millau) 고메 가이드가 선정한 "세기의 셰프(Chefs of the Century)" 후보에 오른 1989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블랑팡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 각자에게 특별히 인그레이빙한 시계를 선물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블랑팡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과 삶의 예술(Art of Living) 부문에 있어 열정을 공유하며 관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